

##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이정원 김혜숙\*\*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강간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주변단서가 관찰자의 사건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1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타인, 지인, 연인, 및 부부),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4가지 다른 강간사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부강간은 다른 관계유형의 강간에 비해 강간으로 덜 지각되며, 강간피해가 덜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가해자처벌도 낮게 내려졌다. 한편 피해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이탈된 행동을 보여준 연인강간에서만 예상대로 여성관찰자는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여성의 정숙성을 낮게 지각하여 강간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부부강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BS와 성별, 그리고 피해여성의 가정생활의 성실성 여부 지각이 부부강간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부강간의 피해자가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 효과는 관찰자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성관찰자의 경우 BS가 높아질수록 동성(同性)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나타난 반면, 여성관찰자의 경우 BS가 높아질수록 동성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현실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강간사건 판단, 온정적 성차별주의, 부부강간, 피해자비난

과거 오랜 시간동안 부부강간은 우리사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채 부부 둘만의 사적인 문제로 공공연하게 취급되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997년 사실혼 관계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 2005년 부부강간 처벌 조항을 추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계기로 부부강간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최근 부부강간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부강간 인정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법학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부강간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고 외국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 이 논문은 이정원의 2011년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 김혜숙,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hsk@ajou.ac.kr

논문은 사람들이 부부강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강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특히 강간) 재판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나 행위 그 자체의 성질’보다는 ‘피해자-가해자간 관계나 피해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고 한다(Batemen, 1991; Weller, 1992). 즉, 사건의 본질보다는 주변 단서들을 가지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처럼 강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단서들은 크게 피해자단서, 관찰자단서 및 상황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단서에는 피해자의 옷차림(Jhonson, 1995; Vali & Rizzo, 1991)과 알코올섭취 유무(Corcoran & Thomas, 1991; Scronce & Corcoran, 1995) 등이 있다. 한편 관찰자의 성별(Anderson & Swainson, 2001; Cowan, 2000; Grubb & Harrower, 2008),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및 강간통념수용도(Burt, 1980; 이석재, 최상진, 2001) 등은 강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관찰자단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단서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Abrams et al., 2003; Duran, Moya & Megias, 2009; Simonson & Subich, 1999; Yamawaki, 2007) 등이 강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단서들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1에서는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을 서로 모르는 사이(타인), 얼굴만 아는 사이(지인), 연인 및 부부 이렇게 총 4조건으로 조작하여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에 따라, 강간사건 판단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부부 강간과 다른 강간들에 대한 판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편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뿐만 아니라 사건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의 효과도 함께 알아보았다. 연구2에서는 부부강간만을 중심으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그리고 피해 여성의 평소 가정생활 태도

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유형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효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피해자에게 비우호적인 사건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왔다(Bridges, 1991; Check & Malamuth, 1993; Koss, 1998). Freetly와 Kane(1995)은 피해자-가해자 간의 친밀한 정도를 안면만 있는 사이, 직장동료, 연인, 약혼자/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 이렇게 5가지 조건으로 변화시킨 뒤, 피해자-가해자 친밀 정도와 가해자 비난간의 선형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해자 간의 친밀한 정도가 증가할수록 가해자 비난은 감소하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강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사건으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와 심리적 충격이 더 낮게 인식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긴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dges & McGrail, 1989). 이처럼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비우호적인 사건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왔다(Bridges, 1991; Check & Malamuth, 1993; Koss, 1998).

따라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다른 관계유형의 강간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Simonson과 Subich(1999)에 의하면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타인, 지인 및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에 비해 강간으로 덜 인식되며, 덜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입을 심리적인 충격이 더 적다고 판단되었다. 즉, 부부강간이 지니는 심각성이 다른 관계유형의 강간보다 더 축소되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1에서는 강간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서로 모르는 사이(타인), 얼굴만 아는 사이(지인), 연인

및 부부 관계로 조작을 하여, 둘 간의 관계가 친밀해 질수록(타인 < 지인 < 연인 < 부부)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 관찰자의 성별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효과

관찰자의 성별은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차요인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간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차가 존재한다는 결과(Anderson, Cooper & Okamura, 1997; Anderson & Swainson, 2001; Cowan, 2000; Grubb & Harrower, 2008; Lonsway & Fitzgerald, 1994)와 성차가 없다는 결과(Abrams et al., 2003; Check & Malamuth, 1984; Krahe, 1988; L'Armand & Pepitone, 1982; Viki et al., 2004; Yamawaki, 2007; Yarmey, 1985)들이 혼재해있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 성별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찰자 성별이 단독으로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효과

Glick과 Fiske(1996, 2000)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단일차원에서 가정되던 기존의 성차별주의에 반박하며, 일방적인 적대감이 아닌 적대감과 온정적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를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크게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차별주의와 동일하게 여성에 대해 적대적 태도만을 보이는 일차원적인 성차별주의를 말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좀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표면적으로 여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감정을 보이지만, 여전히 이분법적 성역할 구분

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오직 그들이 기대하는 전통적 여성상-순종적이고, 가정적이며, 온순한-에 맞게 행동하는 여성들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전통적 여성상에 어긋나는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강한 적대감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성격은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즉 자신들의 고정관념대로 행동하는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로 당근을,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여성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로 채찍질을 하며, 기존의 남성우월적인 사회구조를 좀 더 견고히 하려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이처럼 표면적으로나마 여성에게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실제로는 강간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윤병해와 고재홍(200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강간통념수용도, 피해자 책임귀인 및 피해자비난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조사대상에게 함께 포함시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강간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강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그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피해여성의 행동이나 정숙성,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과 같은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간사건 판단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Abrams et al., 2003; Duran et al., 2009; Masser, Lee & Mckimmie, 2010; Yamawaki,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다른 주변단서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여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뚜렷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Abrams 등(2003)은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간의 상호작용이 강간 피해자 비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며,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이 성적으로 순결하며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부적절하게(즉, 정숙하지 못하게) 행동하여 강간을 자초한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피해자 비난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1에서는 Abrams 등(2003)의 연구를 확장하여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수준에 연인과 부부관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까울수록(타인 < 지인 < 연인 < 부부) 강간 피해자에 대해 더 비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관찰자의 성별과 상호작용을 하여 특정 여성상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김혜숙 등(2005)에 의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전통적 성역할에 어긋난 여성들(예를 들어 미혼모, 레즈비언, 윤락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남성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규범에 이탈된 듯이 보이는 여성”에게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의 부정적인 태도

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김혜숙 등(200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성규범, 가치 및 사회 체제를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체제와 규범을 앞장서서 지키고 수호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남성보다 전통적 성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앞에서 살펴본 Abrams 등(2003)과 김혜숙 등(200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Abrams 등(2003)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피해여성이 ‘정숙하지 못하게’ 행동하여 강간을 자초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비난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김혜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규범에 어긋난 여성(즉, 정숙하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지각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간 피해자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1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1에서는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위의 세 변인들의 삼원상호작용이 무엇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타인, 지인 혹은 연인의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성별과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정숙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보았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적 신념을 갖대로 가지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피해자에 대한 정속성을 더 낮게 지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강해질 것으로 보았다.

부부강간 조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속성이 아닌 ‘피해자가 양처(良妻: good wife)로서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보았다.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아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남편에게 순종적이며, 성적으로 수동적인 여성)에는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부부강간 피해자가 양처로서 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Abrams 등(2003)의 연구에서는 강간사건 판단의 내용으로 피해자 비난만을 중속변인으로 채택하여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1에서는 피해자 비난 외에도 강간사건을 단순한 강압적 성관계가 아닌 강간으로 지각하는 정도(강간지각정도),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강간 심각성), 가해자 처벌도 추가하여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찰자의 강간사건 판단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피해자의 평소 가정생활 태도 간의 상호작용이 부부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2에서는 부부강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가정생활 태도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김혜숙 등(2005)에 의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비전통적 여성상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피해여성이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그러한 여성이 전통적인 양처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욱 지각하고 그에 따라 부부 강간사건을 판단

함에 있어서 그러한 피해자에게 더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비전통적 여성으로 간주되는(즉, 가정생활과 남편에 충실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판단이 강해지는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그리고 피해여성의 평소 가정생활 태도간의 상호작용이 부부강간의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2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지각된 피해 여성의 양처 적절성’으로 보았다. 즉, 관찰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더 보수적인 성역할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던 피해자에 대해 양처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더 강하게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이 그러한 남성보다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던 부부강간 피해여성에게 더 비우호적인 사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았다.

### 연구1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구1에서는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이 요인들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타인, 지인 및 연인조건에서는 지각된 피해여성의 정속성 정도(즉, 피해여성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정속했는지)가 이들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한편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부부일 경우 이러한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지각된 피해여성의 양처 적절성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총 3가지의 가설을 상정하였다.

**가설1.**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해질수록(즉, 타인 < 지인 < 연인 < 부부) 관찰자는 피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혹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우

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 가설1에서 서술한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과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의 상호작용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1.**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타인, 지인 및 연인일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각된 피해자의 정숙성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즉,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자의 정숙성을 낮게 지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2.**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부부일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각된 피해자의 양치로서의 적절성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즉,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자의 양치로서의 적절성을 낮게 지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방법

### 피험자

아주대학교 학부생 235명(남학생 113명, 여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09세( $SD = 2.37$ )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자 6명과 조작점검 문항들에 오답을 한 16명을 제외한 총 213명의 데이터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생 45명(남학생 24명, 여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조작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0.37세( $SD = 2.53$ )였다.

### 절차

피험자들은 1명~8명 단위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번

지 피험자들이 실험실로 들어오면, 실험자는 본 실험 목적이 현대사회의 남녀 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간단한 cover story와 실험 참여시 주의 및 지시사항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강간 시나리오와 측정 항목들이 들어간 질문지를 한 부씩 나눠 주었다. 강간 시나리오는 피해자-가해자 유형이 타인, 지인, 연인 및 부부 총 4조건으로 조작되었으며, 피험자마다 무선으로 한 조건씩 주어졌다.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타인조건인 경우 피해여성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모르는 남성에 의해 강간을 당했으며, 지인조건에서는 얼굴만 아는 남성이 갑작스럽게 피해여성의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을 하였다. 연인조건에서는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 강간을 당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부조건에서는 피해여성이 남편과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도중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연구1의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실험참여자들은 질문지에 제시된 강간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 뒤에 제시되는 사건 판단에 대한 질문들에 응답을 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나리오 조작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조건별로 피해자-가해자 친밀 정도가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밀한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친밀하지 않다, 6=매우 친밀하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각 조건별로 친밀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41) = 86.96, p < .001$ ). 사후검증(Scheffe) 결과 피해자-가해자 간 친밀 정도는 부부, 연인, 지인, 타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M_{부부} = 4.91, M_{연인} = 4.50, M_{지인} = 2.27, M_{타인} = 1.00$ ). 이때 부부와 연인 조건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 두 조건은 지인이나 타인 조건에 비해 친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지인조건이 타인조건에 비해 친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ll ps < .0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경우 부부, 연인, 지인, 타인 순으로 둘 간의 친밀 정도가 높게 지각된다는 연구1 가설의 전제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측정도구**

측정항목들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 용어들로 인해 피험자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모든 항목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용어 대신 시나리오에 제시되었던 이름인 지은과 성수를 사용하였다.

**강간지각정도:** 시나리오 상에 제시된 성관계를 얼마나 강간으로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 사건에서 나타난 성관계는 강간이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강간심각성:** 시나리오 상의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사건으로 인해 은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피해자비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항목(“위 사건에서 은지는 비난받을만하다”, “은지는 위 사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다”, “위 사건은 은지가 자초하였다”)에 대한 각각의 동의 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개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는 .717이었다.

**가해자처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수를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6점 척도(1=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2=6개월, 3=1년, 4=3년, 5=5년, 6=6년 이상)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정숙성:** 타인, 지인 및 연인조건의 경우 매개변인으로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정숙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항목(“위 사건에서 은지는 자신이 여자라는 지각을 가지고, 좀 더 행동거지를 조심했어야 했다”, “위 사건에서 은지의 행동은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했다”, “위 사건에서 은지는 성수가 성적으로 흥분할만한 틈을 보였다”)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여성의 정숙성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코딩되었다. 3개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는 .792였다.

**피해자의 양치로서 적절성:** 부부조건의 경우 매개변인으로 피해자가 양치로서 얼마나 적절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항목(“위 사건에서 은지는 남편인 성수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줬어야 했다”, “위 사건에서 은지의 행동은 양치로서 적절하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은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여성의 양치적절성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코딩되었다. 3개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는 .833이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BS):** 본 실험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개발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12문항)와 온정적 성차별주의(12문항)를 측정하는 총 24문항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예시문항으로는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등이 있으며,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는 .801이었다.

**인상관리 동기:** 실험참가자들의 인상관리동기가 본 실험의 응답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ualhus(1998)의 BIRD-7을 변안한 최보라(2007)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척도인 자기-기만적 고양(10문항), 인상관리(10문항), 사회적 바람직성(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인상관리 10문항을 사용하였다(5점 척도: 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다” 등이 있으며, 10개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는 .721이었다.

**조작점검:** 시나리오 내용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네 가지의 조작점검 문항이 사용되었다. 조작점검 첫 번째 문항은 “은지와 성수는 어떠한 관계인가?”로 네 가지 보기(1=서로 모르는 사이, 2=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 3=연인, 4=부부)중 시나리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항

은 “평소 은지와 성수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로 6점 척도(1=전혀 친밀하지 않다, 6=매우 친밀하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두 문항은 “위 사건에서 은지는 성수의 행동에 대해 싫다고 거절을 했었습니까?”, “위 사건에서 성수는 은지의 거절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까?”로 피험자들이 시나리오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되었다. 이 두 문항에 대해 피험자는 그렇다/아니다 보기 중 응답을 선택하였다.

## 결 과

### 조작점검

시나리오상의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은지와 성수는 어떠한 관계인가?”에서 피험자 중 14명이 오답을 하였으며, 시나리오 조건 간 오답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x^2 = 3.64, p = .303$ ). 한편 은지의 거절여부와 성수의 강제적 행동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에 대해 2명을 제외한 피험자들이 피해자인 은지가 성관계 거부사를 표현했으며, 가해자인 성수가 은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조작점검 문항들 중 틀린 응답을 한 16명의 데이터는 통계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

시나리오 조건별로 피해자-가해자 친밀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212) = 348.09, p < .001$ ). 사후검증(Scheffe) 결과 부부( $M = 5.06, SD = .60$ )와 연인( $M = 4.79, SD = .96$ )조건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부조건이 연인조건보다 평균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또한 앞의 두 조건은 타인( $M = 1.11, SD = .38$ )이나 지인( $M = 2.47, SD = .76$ )조건보다 친밀 정도가 더 높게 지각되었으며, 지인조건은 타인조건보다 친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l  $ps < .001$ ). 이러한 결과는 사전조사 결과와도 일치되었고, 친밀도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 강간지각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관찰자의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이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이 시나리오상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지각하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은 직교대비(orthogonal contrast)를 하기위해 직교대비코딩을 하였다. 첫 번째 대비에서는 부부조건을 나머지 강간조건들과 비교하였으며( $C_1$ : 타인=1, 지인=1, 연인=1, 부부=-3), 두 번째 대비는 연인조건을 타인, 지인조건과 비교( $C_2$ : 타인=1, 지인=1, 연인=-2, 부부=0), 세 번째 대비는 타인과 지인조건( $C_3$ : 타인=1, 지인=-1, 연인=0, 부부=0)을 비교하였다. 인상관리척도와 BS 점수는 각각의 평균을 뺀 centering한 값을 투입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리고 강간지각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인상관리척도 점수를 투입하여 피험자의 인상관리동기를 통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관계유형, 관찰자의 성별 및 관찰자의 BS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들의 이원상호작용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들의 삼원상호작용을 투입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주효과를 알아본 2단계의  $\Delta R^2$ 값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R^2 = .369, p < .001$ ), 그 중에서도 관계유형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관계유형 조건별로 차이를 보면 부부조건( $M = 4.81$ )이 다른 세 조건( $M_{타인} = 5.89, M_{지인} = 5.86, M_{연인} = 5.43$ )보다 강간으로 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_1$ 의  $\beta = .553, p < .001$ ), 연인조건이 타인, 지인조건보다 강간으로 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_2$ 의  $\beta = .230, p < .001$ ). 한편 타인과 지인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전반적으로 피험자들은 시나리오상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가 친밀할수록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으로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종속변인의 시나리오 조건별 평균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1 주요 종속변인의 평균(표준편차)

	타인	지인	연인	부부	전체
강간지각정도	5.89 (.31)	5.86 (.40)	5.43 (.60)	4.81 (.87)	5.45 (.75)
강간심각성	5.80 (.45)	5.86 (.35)	5.35 (.62)	4.86 (.87)	5.43 (.75)
피해자비난	1.65 (.71)	1.74 (.74)	2.73 (1.06)	2.28 (.79)	2.13 (.94)
가해자처벌	5.26 (1.08)	4.90 (1.12)	3.15 (1.42)	2.13 (1.18)	3.73 (1.77)

**강간심각성**

앞의 강간지각정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관찰자의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S)가 강간심각성 지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강간지각정도와 동일하게 2단계의  $\Delta R^2$ 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Delta R^2 = .299, p < .001$ ), 그 중 관계유형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했다. 먼저 부부강간( $M = 4.86$ )이 나머지 세 조건( $M_{타인} = 5.80, M_{지인} = 5.86, M_{연인} = 5.35$ )의 강간보다 그 심각성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C_1$ 의  $\beta = .495, p < .001$ ), 연인강간의 경우 지인, 타인조건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C_2$ 의  $\beta = .258, p < .001$ ). 지인과 타인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덜 심각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간 심각성에 대한 변인들 간의 이원,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해자비난**

통계분석을 위해 피해자비난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인은 앞의 분석들과 동일하게 투입되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단계와 4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하였다(2단계  $\Delta R^2 = .215, p < .001$ ; 4단계  $\Delta R^2$

$= .029, p < .05$ ). 먼저 2단계의 관계유형 주효과를 살펴보면, 연인조건( $M = 2.73$ )이 지인( $M = 1.74$ )이나 타인 조건( $M = 1.65$ )에 비해 피해자 비난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C_2$ 의  $\beta = -.430, p < .001$ ). 그리고 다른 종속측정과는 달리 부부조건( $M = 2.28$ )과 다른 나머지 세 조건간의 피해자 비난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_1$ 의  $\beta = -.102, p > .10$ ). 또한 관찰자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자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8, p < .10$ ).

한편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 성별과 BS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4단계의 투입변인 중, 성별  $\times$  BS  $\times$   $C_2$ 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유의하였는데( $\beta = -.237, p < .01$ ), 연인조건에서 성별과 BS간의 상호작용패턴이 타인과 지인조건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BS의 단순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으로 피해자 비난에 대한 총 6조건[3: 관계유형(타인, 지인, 연인)  $\times$  2: 관찰자 성별(남, 여)]별로 BS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의 성별과 BS가 피해자비난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beta$	t	$R^2$	$\Delta R^2$
1	인상관리	-.078	-1.131	.006	.006
	성별	.118†	1.661		
	BS	.111	1.603		
2	$C_1$	-.102	-1.629	.221	.215***
	$C_2$	-.430***	-6.887		
	$C_3$	-.040	-.649		
3	성별 $\times$ BS	.168†	-1.118		
	성별 $\times$ $C_1$	-.031	-.575		
	성별 $\times$ $C_2$	-.160	.430		
	성별 $\times$ $C_3$	.118	-.333	.256	.035
	$C_1 \times$ BS	-.077	-1.603		
	$C_2 \times$ BS	-.039	1.176		
4	$C_3 \times$ BS	.027	1.924		
	성별 $\times$ BS $\times$ $C_1$	.069	.799		
	성별 $\times$ BS $\times$ $C_2$	-.237**	-2.589	.285	.029*
	성별 $\times$ BS $\times$ $C_3$	.074	.773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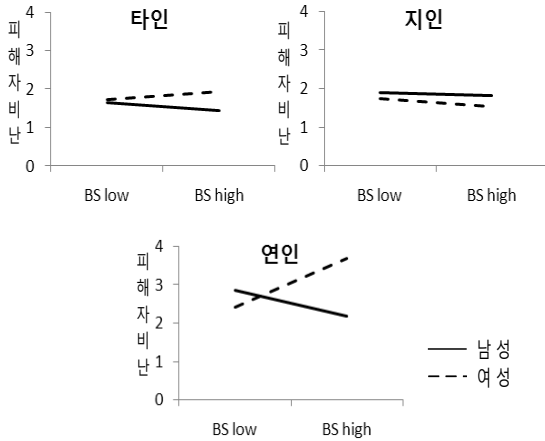


그림 1. 피해자비난에 대한 관계유형 × 관찰자 BS × 관찰자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그 결과,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연인조건의 여성 피해자에서만 관찰자의 BS가 높을수록 피해자 비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709, p < .01$ ), 그 외 다른 조건에서는 BS가 피해자비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비난에 대한 총 6조건[3: 관계유형(타인, 지인, 연인) × 2: 관찰자 BS (고, 저)]별로 성별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타인, 지인조건에서는 관찰자의 BS 정도에 따른 피해자비난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인조건의 경우 낮은 BS에서는 피해자비난 정도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높은 BS에서는 여성관찰자가 남성관찰자보다 피해자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20, p < .001$ ). 실제로 그림 1을 보면, 연인조건에서 BS가 높은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처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인들의 주효과를 알아본 2단계의  $\Delta R^2$  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R^2 = .510, p < .001$ ), 그 중 관계유형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관계유형 조건별로 차이를 보면 부부조건( $M = 2.13$ )이 다른 세 조건( $M_{타인} =$

$5.26, M_{지인} = 4.90, M_{연인} = 3.15$ )에 비해 가해자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_1$ 의  $\beta = .583, p < .001$ ), 연인조건이 타인, 지인조건보다 가해자 처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_2$ 의  $\beta = .438, p < .001$ ). 한편 타인조건과 지인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분석**

연구1의 가설에서는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피해자의 정숙성, 또는 양처적절성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타인, 지인, 연인일 경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정숙했는지(피해자 정숙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매개변인이었다. 한편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숙성이 아닌 피해자가 양처로서 얼마나 적합했는지(피해자 양처 적절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가. 관찰자의 BS와 성별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자 정숙성의 매개효과 : 타인, 지인 및 연인 강간의 경우**

강간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이 타인, 지인 및 연인일 경우 피해자의 정숙성을 매개로 하여 관찰자의 BS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관계유형 별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 방법으로는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그림 2 참고). 매개분석 결과, 타인과 지인조건에서는 피해자 정숙성 지각정도가 관찰자 BS ×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와 강간사건 판단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인조건에서는 강간사건 판단 중 피해자 비난에 대한 관찰자 BS ×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 정숙성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인조건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피해자 비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41, p < .05$ ). 두 번째 단계로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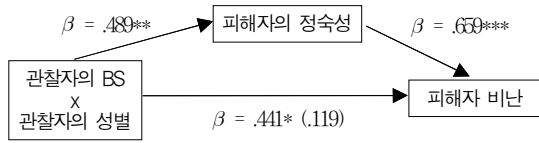


그림 2. 관찰자의 BS × 성별이 피해자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피해자 정숙성의 매개효과 (연인 조건)

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의 정숙성 정도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beta = .489, p < .01$ ). 세 번째 단계에서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후 피해자의 정숙성 지각 정도가 피해자 비난에 주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유의미하였다( $\beta = .659, p < .001$ ).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피해자 정숙성 지각 정도를 통제한 후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119, p = .411$ ). 한편 Sobel test 결과 피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 감소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544, p < .01$ ).

로 나타났다( $z = 2.544, p < .01$ ).

**나. 관찰자의 BS와 성별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자 양처적절성의 매개효과 : 부부 강간의 경우**

부부 강간의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의 양처로서의 적절성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개분석 결과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논 의**

연구1에서는 강간사건 판단(강간지각정도, 강간심각성, 피해자비난, 가해자처벌)에 있어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사건 관찰자의 BS와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3. 연구1 주요변인의 상관표

	관계유형	BS	성별	강간 지각여부	강간 심각성	피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정숙성	양처 적절성
관계유형	1								
BS	.097	1							
성별	-.096	-.389***	1						
강간 지각정도	-.566***	-.159*	.119	1					
강간 심각성	-.521***	.024	.078	.695***	1				
피해자 비난	.330***	.105	.045	-.349***	-.342***	1			
가해자 처벌	-.715***	-.091	.088	.577***	.561***	-.355***	1		
정숙성	.250***	.145*	.017	-.253***	-.272***	.697***	-.254***	1	
양처 적절성	-	.295*	-.250*	-.338**	-.220*	.466**	-.276*	.396**	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상관분석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은 타인=1, 지인=2, 연인=3, 부부=4로 더미코딩되었으므로,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관찰자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더미코딩되었다. 매개변인의 경우, 피해여성이 정숙하지 못하다고 판단될수록, 혹은 양처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먼저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1에서 가정한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의 주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종속변인인 강간지각정도, 강간심각성 및 가해자처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여성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강간의 경우 다른 관계유형(타인, 지인, 연인)의 강간에 비해 강간이라고 덜 지각되었으며,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심각성 정도가 낮게 판단되었으며, 가해자를 덜 처벌하려고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도 이러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의 효과를 지지해주었는데(표 3 참고), 먼저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이 친밀해질수록, 강간지각정도, 강간심각성 및 가해자처벌과는 부적상관을, 피해자비난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본 연구1에서 제시한 가설1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가설1에서 함께 가정한 강간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해지는 경우,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증가하는 경향성은 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 비난이 증가되는데, 특히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타인관계)보다 친밀한 지인관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Abrams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Abrams 등(2003)의 연구에서 피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의 BS 효과가 타인조건보다 지인조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피해자-가해자의 친밀도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내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타인조건 시나리오에는 피해여성이 길을 걷다가 강간을 당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강간을 촉발시켰다는 책임을 귀인시킬만한 단서가 없는 중립적인 내용의 시나리오이다. 반면 지인조건 시나리오에는 피해여성이 파티에서 알게 된 가해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인조건에서 피해여성이 가해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행동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자가 기대하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따라서 지인조건 시나리오에서 피해여성이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이 피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의

BS 효과를 촉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인조건에서만 나타난 피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의 성별과 BS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위의 해석을 지지해준다.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한 타인조건, 무단으로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집에 침범하여 성폭행을 한 지인조건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부부조건은,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킬만한 단서가 없는 중립적인 내용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연인조건 시나리오에서는 Abrams 등(2003)과 유사하게, 피해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가해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연인강간 피해여성의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이 이 조건의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 효과를 촉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Abrams 등(2003)의 해석대로라면,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내용과 상관없이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장 친밀한 부부조건에서 관찰자의 BS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피해여성이 비전통적 여성상으로 묘사된 연인조건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중립적인 내용의 시나리오에서는, 단순히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피해여성의 행동이 비전통적 성역할 행동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만 관찰자의 BS가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평소 일반적인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전통적인 성규범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게만은 더 가혹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비난에 대한 독립변인들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에서 BS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인조건에서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관찰자가 남성관찰자보다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관찰자는 남성관찰자보다 피해여성의 정숙성을 낮게 지각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비난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 사이에서도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 더 엄

격하고 보수적인 성적신념을 바탕으로, 비전통적인 성역할 행동을 보여준 피해여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기존의 성차별주의와는 차별된 BS만의 성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다른 관계유형의 강간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졌던 부부강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의 전통적 여성상(예를 들어, 현모양처) 적합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이러한 피해여성의 특성이 강간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성별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 연구2

연구1의 실험을 통해 부부강간이 다른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의 강간에 비해 강간으로 덜 지각이 되고, 강간의 심각성도 축소되며, 가해자 처벌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2에서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이 강하게 내려지는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강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1의 결과, 피해여성의 행동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일탈이라고 일면 지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묘사된 연인조건에서만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일탈 행동이 묘사되지 않은 다른 조건들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부부강간에 초점을 맞추되, 피해자의 평소 가정생활 성실도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전통적 성역할 규범 순응 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이 변인이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였다. 즉, 연구2에서는 사건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및 피해자의 가정생활 성실도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부부강간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강간사건판단의 경우 연구1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던 가해자비난을 추가시켜, 총 5가지 영역(강간지각정도, 강간심각성, 피해자비난, 가해자비난 및 가해자처벌)에서 이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부부강간 사건 판단에 대한 위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피해여성의 양치로서의 적절성 지각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1의 결과, 부부조건에서 피해자비난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삼원상호작용이나 매개효과와 같은 가설들이 지지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시나리오 내용이 적절하게 조작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연구1의 피해자가 미혼의 학부생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즉, 미혼의 학부생들은 대학생 커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인강간 조건의 시나리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여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부부강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덜 관여되어 있으므로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일반인도 함께 실험대상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상정하였다.

**가설1.** 피해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정보가 주어질 경우,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부부강간 피해자에 대해 비우호적 판단 (혹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우호적 판단)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건 판단에 대한 이러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효과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2.** 부부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각된 피해자의 양치적절성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즉,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부부강간 피해자의 양치적절성을 낮게 지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방법

### 피험자

연구2의 참가자는 기혼자인 일반인과 미혼자인 학부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 이주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기혼자 108명(남자 56명, 여자 5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0.62세( $SD = 6.24$ )였다. 이때 조작점검 문항에 틀리게 응답을 한 7명을 제외한 101명의 데이터를 실제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학부생의 경우 아주대학교 학부생 159명(남학생 62명, 여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8세( $SD = 2.30$ )였으며, 모두 미혼자였다. 이때 실험 방식이 달리 진행된 10명과 조작점검 문항에 오답을 한 4명을 제외하여, 총 145명의 데이터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본 실험에 앞서 시나리오 조작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반인의 경우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23명의 기혼자 일반인(남자 8명,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1.36세( $SD = 6.75$ )였다. 미혼인 학부생의 경우 아주대학교 학부생 55명의 학생(남학생 29명, 여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3.22세( $SD = 2.40$ )였다.

## 절차

연구2의 실험절차는 연구1의 실험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최대 15명 단위로 강의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나리오 내용도 연구1과 달리,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부부관계로 한정시켰으며,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정도를 조작하였다. 한 조건에서는 피해여성이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정보(즉, 인터넷 중독에 빠져 아들을 돌보지 않고, 빨래나 설거지 같은 가사일도 방치했다는 등)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한 조건은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통제조건이었다. 연구2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된 두 조건의 강간 시나리오는 실험 참가자에게 무선으로 한 조건씩 주어졌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강간 시나리오 내용 중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정도가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 참

가한 피험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 23명과 학부생 55명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무선으로 주어진 한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해여성이 가정생활에 불성실 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t$ 검증을 실시하여 시나리오 조건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경우 통제조건( $M = 2.45, SD = 1.04$ )에 비해 불성실 조건( $M = 5.25, SD = .62$ )의 피해여성이 평소 가정생활에 더 불성실 했다고 판단하였다( $t = -7.762, p < .001$ ). 학부생의 경우에도 통제조건( $M = 1.93, SD = .73$ )에 비해 불성실조건( $M = 3.96, SD = 1.14$ )의 참가자가 피해여성이 가정생활 불성실했다는 문항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7.935, p < .001$ ). 따라서 강간 시나리오 내용에서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조작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시나리오를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연구2에서 사용한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측정도구는 연구1에서 사용한 도구들과 거의 유사하고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 연구2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해자라는 용어대신 시나리오에 제시된 지연과 현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강간지각정도, 강간심각성:** 연구1과 동일하다.

**피해자비난:** 연구1과 동일하다. 이때 피해자비난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743, 학부생은 .786이었다.

**가해자비난:** 연구1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던 가해자비난을 종속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총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현식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다”, “현식은 위 사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문항에 동의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두 문항들 간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545, 학부생은 .575이었다.

**가해자처벌:** 가해자처벌은 연구1과 달리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현식을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6점 척도(1=구속

하지 말아야 한다, 2=1개월, 3=3개월, 4=6개월, 5=1년, 6=3년 이상)로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기간 이외에도 “현식을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좋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점 척도(1=전혀 처벌하지 않는다, 6=매우 강하게 처벌한다)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754, 학부생은 .740이었다.

**피해자의 양치로서 적절성:** “평상시 지연의 행동은 양치로서 적절하지 않았다”, “지연은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평소 지연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3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두 문항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932, 학부생은 .969이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연구1과 동일하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2문항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859, 학부생은 .867이었다.

**인상관리 동기:** 연구1과 동일하다. 관찰자의 인상관리 동기를 측정하는 10문항의 내적신뢰도가 일반인은 .772, 학부생은 .704이었다.

**조작점검:** 연구1에서 사용된 조작점검 문항 중 친밀도 측정을 제외한 나머지 3문항(지연과 현식은 어떠한 관계인가, 위 사건에서 지연은 현식에 행동에 대해 싫다고 거절을 했었는가, 위 사건에서 현식은 지연의 거절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가)을 모두 사용하였다. 한편 매개변인 측정문항 중 “평소 지연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강간 시나리오에서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점검하였다.

## 결 과

일반인과 학부생의 응답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일반인과 학부생을 따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일반인

#### 조작점검

연구1과 동일하게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상의 피해자

와 가해자간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지연과 현식은 어떠한 관계인가?”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08명의 피험자가 모두 부부사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시나리오 상의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조작이 적절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지연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문항에 동의 정도가 시나리오 조건별로 차이가 나는지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제 조건( $M = 2.48, SD = 1.01$ )보다 불성실 조건( $M = 4.91, SD = .97$ )의 피험자들이 피해여성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문항에 더 동의하였다. ( $t = -12.10, p < .001$ ).

나머지 두 조작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들이 시나리오 상의 피해여성이 지연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으며, 가해자 현식은 지연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시나리오 조건 간 오답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x^2 = .72, p = .510$ ). 따라서 조작점검 문항에 오답을 한 7명의 피험자는 제외하고 주요종속측정 통계분석 시 총 10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강간지각정도

부부강간에서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관찰자의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삼원상호작용이 시나리오 상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를 조작한 시나리오 유형을 더미코딩 하였다(통제 조건: 0, 불성실 조건: 1). 관찰자 성별의 경우에도 더미코딩을 하여, 남자는 0으로, 여자는 1로 코딩하였다. 인상관리척도와 BS점수는 연구1과 마찬가지로 평균을 뺀 centering한 값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강간지각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인상관리척도 점수를 투입하여 피험자의 인상관리동기를 통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시나리오조건, 관찰자의 성별, 관찰자의 BS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들의 이원상호작용을 투입했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들의 삼원상호작용을 투입했다. 분석결과, 각 변인들의 주효과를 투입한 2단계의  $\Delta R^2$ 가 유의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며(2단계의  $\Delta R^2 = .074, p < .10$ ), 관찰자의 BS가 높을수록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관관계가 강간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는 낮아지는, BS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beta = -.270, p < .05$ ). 한편 다른 변인들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간심각성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피해자의 가정생활 성실도, 관찰자의 성별과 BS는 시나리오 상의 강간 심각성 지각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비난

피해자비난을 종속변수로 하여 세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변인들의 주효과를 투입한 2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312, p < .001$ ). 그 중에서도 관찰자의 BS와 시나리오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관찰자의 BS가 높을수록 피해자비난이 증가하였으며( $\beta = .241, p < .05$ ), 피해여성이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하다는 정보가 제공된 시나리오 조건( $M=4.1, SD=1.0$ )에서 통제조건( $M=2.9, SD=0.9$ )보다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02, p < .001$ ).

### 가해자비난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비난의 경우 세 독립변인들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단계의  $\Delta R^2 = .059, p < .05; \beta = .443, p < .05$ ). 연구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BS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불성실조건의 남성피해자에서만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가해자비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70, p < .01$ ). 한편 나머지 3조건에서는 가해자비난에 대한 BS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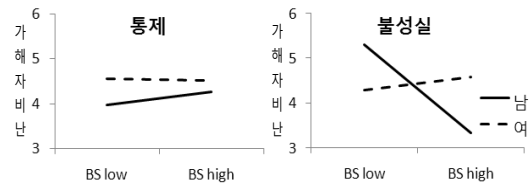


그림 3. 가해자비난에 대한 시나리오 × 관찰자 BS × 관찰자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일반인)

### 가해자처벌

회귀분석 결과, 시나리오, 관찰자의 성별과 BS는 가해자처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생

#### 조작점검

학부생의 경우 “지연과 현식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피해자가 부부사이라고 정확히 답변하였다. 한편 피해여성이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시나리오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났다. *t*검증 결과, 통제조건( $M = 1.85, SD = .81$ )에 비해 불성실조건( $M = 5.18, SD = .66$ )의 참가자가 피해여성이 가정생활 불성실했다는 문항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7.16, p < .001$ ).

마지막으로 나머지 두 조작점검 문항을 분석한 결과, 4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시나리오 상의 피해여성이 지연이 상관관계 거부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으며, 가해자 현식은 지연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시나리오 조건 간 오답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chi^2 = 1.00, p = .620$ ). 따라서 시나리오 상의 상관관계를 강압적으로 지각하지 않은 4명의 피해자는 제외하고 주요종속측정 통계분석 시 총 14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강간지각정도

부부강간에서 시나리오, 관찰자의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삼원상호작용이 시나리오 상의 상관관계를 강간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독립변인들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투입된 3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했다( $\Delta R^2 = .116, p < .001$ ). 그 중에서 강간지각정도에 대한 관찰자의 BS x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x 관찰자의 성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32, p < .001; \beta = .631, p < .001$ ).

관찰자의 BS x 시나리오간의 상호작용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조건별로 BS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제조건에서는 관찰자의 BS에 따른 강간지각정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beta = .146, p > .10$ ),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불성실 정보를 제공한 시나리오 조건에서는, 예상대로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시나리오 상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덜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beta = -.234, p < .10$ ).

한편 강간지각정도에 대한 시나리오 x 관찰자의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관찰자 성별로 시나리오 조건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관찰자는 불성실조건보다 통제조건에서 강간지각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beta = .437, p < .10$ ),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시나리오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eta = -.161, p > .10$ ). 한편, 시나리오 조건별로 성별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제조건에서는 관찰자 성별에 따른 강간지각정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beta = .146, p > .10$ ), 불성실조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지각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52, p < .05$ ).

마지막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강간지각정도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성별, 시나리오 간의 삼원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4단계의  $\Delta R^2 = .018, p < .10; \beta = -.312, p < .10$ ). 이 역시 각 조건

의 BS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관찰자의 경우 시나리오 두 조건모두에서 BS가 강간지각정도를 예측해주지 못했다( $\beta_{통제} = -.094, p > .10; \beta_{불성실} = -.360, p > .10$ ). 그러나 여성관찰자의 경우 통제조건에서는 BS가 높아질수록 강간지각정도는 높아지는 반면, 불성실조건에서는 BS가 높아질수록 강간지각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beta_{통제} = .445, p < .05; \beta_{불성실} = -.509, p < .01$ ).

### 강간심각성

회귀분석 결과, 시나리오, 관찰자의 성별과 BS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강간심각성 지각 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비난

회귀분석 결과, 각 독립변인의 주효과가 투입된 2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했다( $\Delta R^2 = .332, p < .001$ ). 먼저 관찰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 피해자비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15, p < .01$ ),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비난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beta = .151, p < .10$ ). 또한 피해여성의 평소 가정생활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통제조건에 비해 피해자비난이 증가하였다( $\beta = .454, p < .001$ ).

또한 세 가지 예측변수들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4단계의  $\Delta R^2 = .014, p < .10; \beta = .274, p < .10$ ). BS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관찰자의 경우 시나리오 두 조건에서 모두 BS가 피해자비난을 예측해주지 못했다( $\beta_{통제} = .327, p > .10; \beta_{불성실} = .206, p > .10$ ). 여성관찰자의 경우 예상한대로, 통제조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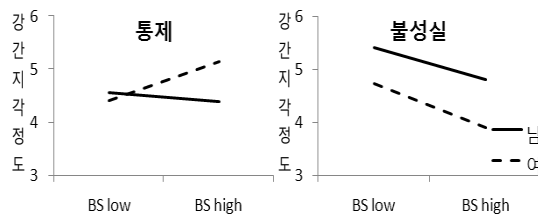


그림 4. 강간지각정도에 대한 시나리오 x 관찰자 BS x 관찰자의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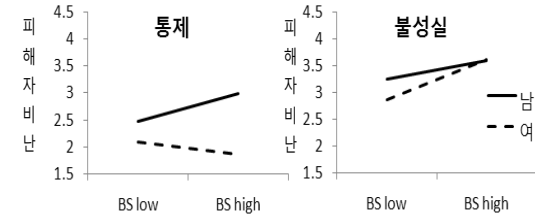


그림 5. 피해자비난에 대한 시나리오 x 관찰자 BS x 관찰자의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학부생)

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BS가 피해자비난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불성실조건에서는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비난이 증가하였다( $\beta_{통제} = -.135, p > .10; \beta_{불성실} = .456, p < .05$ ).

**가해자비난**

가해자비난에 대한 세 가지 예측변인들의 효과들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2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했다( $\Delta R^2 = .087, p < .01$ ). 그 중 관찰자의 BS와 시나리오 각각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관찰자의 BS가 높아지거나, 피해여성이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했을 경우 가해자비난은 감소하였다( $\beta = -.202, p < .05; \beta = -.186, p < .05$ ).

한편 독립변인들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투입된 3단계의  $\Delta R^2$ 가 유의미했으며( $\Delta R^2 = .062, p < .05$ ), 모든 이원상호작용효과가 가해자비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그림 6과 같이 관찰자 BS와 성별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beta = .288, p < .05$ ), 성별에 따른 BS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여성관찰자의 경우 BS가 높아질수록 가해자비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beta = .262, p < .05$ ). 반면 남성관찰자의 경우 BS는 가해자비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 = -.042, p > .10$ ).

가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 BS와 시나리오 간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beta = -.277, p < .05$ ). 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BS의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조건에서 관찰자의 BS는 가해자비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불성실조건

감소하였다( $\beta_{통제} = -.071, p > .10; \beta_{불성실} = -.299, p < .01$ ).

마지막으로 그림 8에서와 같이 관찰자의 성별과 시나리오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했는데( $\beta = -.338, p < .05$ ), 남자관찰자의 경우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는 가해자비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beta = -.213, p > .10$ ). 반면 여성관찰자의 경우 불성실 시나리오 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가해자비난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beta = -.333, p < .10$ ).

**가해자처벌**

회귀분석 결과, 시나리오, 관찰자의 성별과 BS는 가해자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관찰자의 BS와 성별이 강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자 양처적절성의 매개효과**

연구2의 가설2에서는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부부간 피해자의 양처적절성을 낮게 지각하고, 그로인해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매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통제조건과 불성실조건을 통합하여 BS × 성별이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양처로서의 적절성 지각이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조건을 통합하여 매개 분석을 한 것은 각각의 시나리오 조건별로 매개 분석을 하는 경우 양처적절성 지각의 표준편차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 일반인의 경우 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양처적절성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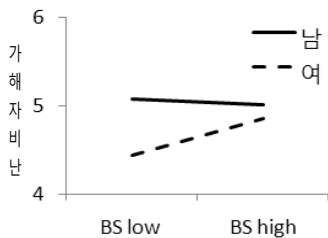


그림 6. 가해자비난에 대한 관찰자 성별 × 관찰자 BS의 이원상호작용효과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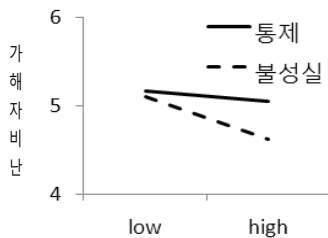


그림 7. 가해자비난에 대한 시나리오 × 관찰자 BS의 이원상호작용효과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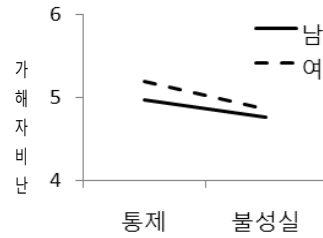


그림 8. 가해자비난에 대한 시나리오 × 관찰자 성별의 이원상호작용효과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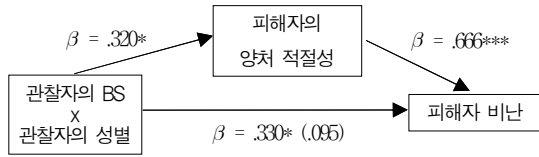


그림 9.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피해자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피해자 양처적절성의 매개효과 (일반인)

정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강간에서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여성이 양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더 강하게 지각하고, 그로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단계에서 관찰자의 BS × 관찰자의 성별의 상호작용이 피해자 비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30, p < .05$ ). 두 번째 단계로 이 이원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의 양처로서의 적절성 지각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beta = .320, p < .05$ ).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이원상호작용효과를 통제 후 피해자의 양처로서의 적절성 지각이 피해자비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유의미하였다( $\beta = .666, p < .001$ ).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피해자의 양처로서의 적절성 지각 정도를 통제 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95, p = .413$ ). Sobel test 결과 피해자비난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감소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1.722, p < .05$ ).

한편 일반인의 경우 피해자비난 외에 다른 종속변인들에서는 이러한 양처적절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부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논 의

연구2에서는 일반인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부부강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성별과 BS, 피해여성의 평소 가정생활 성실도가 사건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회귀분석결과, 부부강간 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와 시나리오 조건의 주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관찰자의 BS가 증가할수록, 피해자 비난은 증가하였으며(일반인과 학부생 모두에서), 강간 지각정도가 낮아지고(일반인의 경우), 가해자비난도 감소하였다(학부생의 경우). 한편 시나리오의 불성실조건에서는 통제조건보다, 피해자비난이 증가하였으며(일반인과 학부생 모두에서), 가해자비난이 감소하였다(학부생의 경우).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상관분석 결과와도 일관된다. 즉,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또는 피해여성의 평소 가정생활 태도가 불성실할수록, 강간사건 피해여성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효과들은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대로, 관찰자의 BS와 성별, 시나리오 조건 간의 삼원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다. 학부생의 경우, 불성실 시나리오 조건에서 여성관찰자는 BS가 높아질수록 강간 지각정도는 낮아지고 피해자비난이 증가하였지만, 남성관찰자에서는 이러한 BS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성실 시나리오조건에서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여성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은 증가하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1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피해자비난에 대한 세 독립변인들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이탈했을 경우,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비난이 증가되는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2의 결과는, 연구1의 연인조건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가해자인 남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행동)을 보여준 피해여성에게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비난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결과를 반복검증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 불성실조건의 남성피해자만이 BS가 높아질수록 가해자비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통제조건의 남성과 여성, 불성실 조건의 여성)에서는 BS가 가해자비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성실조건에서 가해자비난에 대한 남성관찰자의 BS의 효과는 학부생에서도

표 4. 연구2 일반인의 주요변인 상관표 (괄호 안은 학부생)

	시나리오	BS	성별	강간 지각여부	강간 심각성	피해자 비난	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양처 적절성
시나리오	1								
BS	-.056 (.168*)	1							
성별	.086 (-.034)	-.566*** (-.397***)	1						
강간 지각정도	.021 (.044)	-.267** (-.027)	.176† (-.052)	1					
강간 심각성	-.055 (-.034)	-.210* (-.051)	.155 (-.031)	.757*** (.585***)	1				
피해자 비난	.512*** (.459***)	.269** (.325***)	-.203* (-.288***)	-.432*** (.171*)	-.472*** (-.183*)	1			
가해자 비난	-.088 (-.199*)	-.161 (-.228**)	.176 (.134)	.487*** (.458***)	.535*** (.352***)	-.417*** (-.361***)	1		
가해자 처벌	-.014 (.050)	-.115 (-.146†)	.203* (.163*)	.576*** (.469***)	.580*** (.522***)	-.404*** (-.178*)	.483*** (.373***)	1	
양처 적절성	.788*** (.905***)	.196* (.281**)	-.149 (-.169*)	-.183† (.024)	-.259** (-.059)	.707*** (.593***)	-.216* (-.252**)	-.206* (-.027)	1

† p<.10, \* p<.05, \*\* p<.01,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즉, 불성실조건에서 남성관찰자는 BS가 높아질수록 가해자비난을 감소시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성실조건에서 가해자비난에 대한 남성관찰자의 BS효과, 앞서 언급한 피해자비난에 대한 여성관찰자의 BS효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가정생활에 불성실 했던 부부강간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판단의 내용이 관찰자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남성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을 하는 반면, 여성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 참여한 일반인, 학부생 모두 아주대학교 학생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선불리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피험자 집단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반복검증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관찰자의 BS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부부강간 사건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양처적절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 참여자에 있어 이러

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자의 양처적절성을 낮게 지각하고 그로인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강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1 연인조건의 매개효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관찰자의 BS가 높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전통적 성역할을 갖대로 피해여성을 정숙성을 낮게 판단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비난이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부부강간 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BS × 시나리오 조건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는데(학부생의 경우), 통제 시나리오조건과 달리, 불성실 시나리오조건에서만 관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강간지각도와 가해자비난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통제조건에서 관찰자의 BS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연구1의 중립적 시나리오를 사용한 부부조건에서 관찰자의 BS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반복검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는 BS가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사건판단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연구1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피해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만, 관

찰자의 BS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이 강해진다는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비전통적 여성상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간사건판단에 대한 관찰자 성별 × 시나리오 조건의 이원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했는데(학부생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은 불성실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가해자비난이 감소하였으며, 강간지각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강간지각정도의 경우 불성실조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시나리오 상의 사건을 강간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즉, 여성관찰자는 피해여성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남성보다 강해졌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간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고 그에 따라 더 방어적이 되어(즉, 자기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부부강간을 더욱 부정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정보가 있을 때 부부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으로 더욱 귀인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더욱 내부귀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강간 피해여성의 규범 이탈정도를 다양하게 조작하여 실제로 여성관찰자가 남성관찰자보다 사회규범을 이탈한 피해여성에게 더 가혹한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종합논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부부강간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부부강간은 다른 피해자-가해자 관계(타인, 지인, 연인)에서 일어나는 강간에 비해 강간으로 덜 지각되며, 강간이 지니는 심각성이 축소되어 지각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강간 피해자는 강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내려지는 편파적인 사건판단 때문에 2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표면적으로나마 여성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실제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강간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을 예측했다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연구1의 경우 피해 여성의 행동이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즉, 연인 강간의 경우)에만,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관찰자는 남성관찰자보다 피해자의 정숙성을 더 낮게 지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비난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연구2에서 부부강간 피해자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정보가 제시된 조건에서만,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피해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이탈 정도에 대한 일말의 부정적인 정보가 제공될 경우,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관찰자는 남성관찰자보다 피해여성이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한 정도를 더 강하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피해자비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매개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이나 부부간 강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간을 정당화 시켜줄 만하다고 생각되는 일말의 상황 단서나 피해자의 행동 단서에 더욱 주목하고 피해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책임 부여를 하여 결국 피해자의 탓을 더욱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연구1에서는 이러한 행동 단서의 (전통적 여성상으로부터의) 부적절성이 비교적 모호하였고(즉, 연인을 하숙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2의 부부강간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가정생활에서의 불성실을 기술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모호한 행동 정보나 상황단서가 주어졌을 경우에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들이 피해여성의 양처로서의 부적절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

을 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2에서 나타난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부부강간의 피해자가 평소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즉, 전통적 여성상에 어긋날 경우)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효과는 관찰자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이다. 남성관찰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동성(同性)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나타난 반면, 여성관찰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동성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이 나타났다. 피해자비난에 대한 여성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효과는 연구1의 연인조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간피해자에 대한 부적 태도를 예측해준다는 일원적인(unitary) 효과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강간사건 판단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신뢰로운 결과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피험자 집단을 통해서 반복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단서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1에서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이, 연구2에서는 피해여성의 가정생활 성실도, 관찰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별이 어떻게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건의 본질(즉, 가해자의 의도나 행동)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특성과 관찰자 요인과 같은 주변단서에 의해 강간사건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반인이 강간사건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주변 단서들에 의해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강간 재판의 경우,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불성실을 과장하여 지적함으로써,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배심원들

이 피해자를 더욱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상황에서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보다 실제 재판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모의재판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배심원 참여자의 판단을 검토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1-19.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8-209.
- 최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논문*.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 Anderson, I., & Swainson, V. (2001). Perceived motivation for rape: gender differences in beliefs

- about female and male rape.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6, 107 - 122.
- Batemen, E. (1991). The context of date rape.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 94-99). Seattle: Seal Press.
- Brekke, N. & Borgida, E. (1988).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in rape trials: A social-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72-386.
- Bridges, J. S. (1999). Perceptions of date and stranger rape: A difference in sex role expectations and rape supportive beliefs. *Sex Roles*, 24, 291-307.
- Bridges, J. S., & McGrail, C. A. (1989).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date and stranger rape. *Sex Roles*, 21, 273-286.
- Calhoun, L. G., Cann, A., Selby, J. W., & Magee, D. L. (1981). Victim emotional response: Effects on social reaction to victims of rap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17-21.
- Cann, A., Calhoun, L. G., & Selby, J. W. (1979).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of rape: Influence of information regarding past sexual experience. *Human Relations*, 32, 57-67.
- Check, J. V. P., & Malamuth, N. M.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44-356.
- Check, J. V. P., & Malamuth, N. M. (1984). Can there be positiv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pornography experiments? *Journal of Sex Research*, 20, 14-31.
- Corcoran, K. J., & Thomas, L. R. (1991). The influence of observed alcohol consumption on perceptions of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in a college dating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500 - 507.
- Cowan, G. (2000). Beliefs about the causes of four types of rape. *Sex Roles*, 42, 807 - 823.
- Deitz, S. R., Littman, M., & Bentley, B. J. (1984).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rape: The influence of observer empathy, victim resistance, and victim attractiveness. *Sex Role*, 10, 261-280.
- Duran, M., Moya, M., Megias, J. L., & Viki, G. T. (2009). Social perception of rape victims in dating and married relationships: the role of perpetrator's benevolent sexism. *Sex Roles*, 62(7/8), 505-519,
- Edmonds, E. M. & Cahoon, D. D. (1986). Attitudes concerning crimes related to clothing worn by female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4, 444-446.
- Freetly, A. J., & Kane, E. W. (1995). Men's and women's perceptions of non-consensual sexual intercourse. *Sex Roles*, 33, 785-802.
- Gerdes, E. P., Dammann, E. J., & Heiling, K. E. (1988).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assailants: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cquaintance, and subject gender. *Sex Role*, 19, 141-153.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 - 512.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Abrams, D., Masser, B., Adetoun, B., Osagie, J., Akande, A., Alao, A., Brunner, A., Willemssen, T. M., Chipeta, K., Dardenne, B., Dijksterhuis, A., Wigboldus, D., Eckes, T., Six-Materna, I., Exposito, F., Moya, M., Foddy, M., Kim, H.-J., Lameiras, M., Sotelo, M. J., Mucchi-Faina, A., Romani, M., Sakalli, N., Udegbe, B., Yamamoto, M., Ui, M., Ferreira, M. C, & Lopez, W. L. (2000). Beyond prejudice as a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63 - 775.
- Grubb, A., & Harrower, J. (2008).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an analysis of participant

-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 396 - 405.
- Johnson, J. D., & Jackson, L. A. Jr. (1988) Asserting the effects of factors that might underlie the differential perception of acquaintance and stranger rape. *Sex Role, 19*, 37-45.
- Johnson, K. K. P. (1995). Attributions about date rape: Impact of clothing, sex, money spent, date type, and perceived similarity.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 292 - 311.
- Johnson, J. D., Jackson, L. A. Jr., & Smith, G. J. (1989). The role of ambiguity and gender in mediating the effects of salient cogni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52-60.
- Kanekar, S., & Nazareth, A. M. (1988) attributed rape victim's fault as a function of her attractiveness, physical hurt, and emotional disturbance. *Social Behavior, 3*, 37-40.
- Kleinke, C. L., & Meyer, C. (1990). Evaluation of rape victim by men and women with high and low belief in a just world.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343-353.
- Koss, M. P., Dinero, T. E., Seibel, C. A., & Cox, S. L. (1988).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1-24.
- Krahe, B. (1988). Victim and observer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to victims of rap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50-58.
- L'Armand, K., & Pepitone, A. (1982). Judgments of rape: A study of victim-rapist relationship and victim sexual hist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134-139.
- Marx, B. P., & Gross, A. M. (1995). Date rape: An analysis of two contextual variables. *Behavior Modification, 19*, 451 - 464.
- Pualhus, D. L. (1998). *Manual for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7)*. Toronto/Buffalo: Multi-Health systems.
- Simonson, K., & Subich, L. M. (1999). Rape perception as a function of gender-role traditionality and victim-perpetrator association. *Sex Role, 40(7/8)*, 619-634
- Scronce, C. A., & Corcoran, K. J. (1995). The influence of the victim's consumption of alcohol on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1*, 241 - 245.
- Shotland, R. L., & Goodstein, L. (1983). Just because she doesn't want to doesn't mean it's rape: An experimentally based causal model of the perception of rape in a dating sit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220-232.
- Vali, D., & Rizzo, N. (1991). Apparel as one factor in sex crimes against young females: Professional opinions of U.S. psychiat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5*, 167 - 181.
- Viki, G. T., Abrams, D., & Masser, B. (2004). Evaluating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Law and Human Behavior, 28*, 295-303.
- Weller, S. (1992). Why is date rape so hard to prove? *Health, 6*, 62-65.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4)*, 406-423
- Yarmey, A. D. (1986). Older and younger adults'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toward rape victims and rapis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7*, 327-338.



## 부록

### 연구1의 시나리오

**타인조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지(가명, 21세)는 어제 저녁 7시경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식당에 갔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중 은지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은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김성수(가명, 26세)라는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성수는 은지에게 말을 걸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그녀가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성수는 은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그녀는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성수는 그녀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치마를 벗겼다. 은지는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성수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지인조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지(가명, 21세)는 어제 저녁 7시경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식당에 갔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다. 은지는 자취방 현관 앞에서 자신과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서로 인사정도만 하는 사이인 김성수(가명, 26세)라는 남학생을 보았다. 은지는 성수에게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성수가 갑자기 은지의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그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성수는 은지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치마를 벗겼다. 은지는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성수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연인조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지(가명, 21세)는 어제 저녁 7시경 김성수(가명, 26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식당에 갔다. 성수와 은지는 캠퍼스 커플(C.C.)로, 약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이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영화 DVD를 보기 위해 은지의 자취방으로 갔다. DVD를 보는 동안, 성수는 은지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쌌다. 몇 분 후, 성수는 그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성수는 은지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치마를 벗겼다. 은지는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성수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부부조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지(가명, 21세)는 어제 저녁 7시경 김성수(가명, 26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식당에 갔다. 성수는 은지와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둘은 1년 전에 결혼을 한 사이이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영화 DVD를 보기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 DVD를 보는 동안, 성수는 은지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쌌다. 몇 분 후, 성수는 그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성수는 은지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치마를 벗겼다. 은지는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성수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 연구2의 시나리오

**통제조건.**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지연(가명, 36세)은 9년 전 김현식(가명, 39세, 회사원)과 결혼을 한 9년차 주부이다. 그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아들과 남편 이렇게 셋이서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10년 9월 XX일, 지연과 현식은 밤 10시 반 경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운 현식은 지연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나, 그녀가 거부하였다. 몇 분 후, 현식은 그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피곤해서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현식은 지연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그녀의 옷을 벗겼다. 지연은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현식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불성실 조건.**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지연(가명, 36세)은 9년 전 김현식(가명, 39세, 회사원)과 결혼을 한 9년차 주부이다. 그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아들과 남편 이렇게 셋이서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지연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지연은 가정을 내팽겨 둔 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인터넷만 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지연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인터넷에만 매달리느라 어린 아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쏟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연의 아들은 초등학교에서 자주 지각을 하고,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가사일도 남편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 하지만 항상 설거지와 빨래거리가 밀리기 일쑤였다. 주변 이웃들도 지연이 인터넷 중독 때문에 가정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지연은 자신의 가정에 무관심했다. 사건 당일인 2010년 9월 XX일, 지연과 현식은 밤 10시 반 경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운 현식은 지연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나, 그녀가 거부하였다. 몇 분 후, 현식은 그녀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피곤해서 싫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현식은 지연의 거절을 무시하고 그녀를 움켜쥐고 키스를 하며 그녀의 옷을 벗겼다. 지연은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현식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 The Effect of Peripheral Cues on the Judgement of Rape Cases : Focused on Marital Rape

Jung-Won Lee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ipheral cues, such as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 between victim-perpetrator, the observer's benevolent sexism(BS) and sex on the judgement of rape cases. In Study 1, we hypothesized that female participants who were in high BS would show more unfavorable judgement on the rape victim than males of high BS, and this tendency would be stronger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became closer. To examine the hypothesis we presented the participants with one of the four different types(stranger, acquaintance, dating couple and spouse) of rape scenarios and afterwards asked them to judge on it.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marital rape case was perceived less as rape, as less serious, and the perpetrator of the marital rape was imposed lighter punishment than of other rapes. Furthermore, only in the date rape case, those who were of high BS blamed the rape victim more than those who were of low BS and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females than in males. In study 2, we manipulated loyalty of the marital rape victim to her family and examined the effect of this variable on the judgement about marital rape. When the participants received the information that the victim was disloyal to her family, the observer's BS affected the judgement in different ways in terms of the observer's gender. That is, whereas high BS males showed unfavorable judgement of the victim by decreasing blame for the perpetrator, high BS females showed their unfavorable judgment of the victim by increasing blame for the victim. We discussed abou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 words* : the judgement of rape cases, benevolent sexism, marital rape, blaming victim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12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2월 09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2월 10일